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미래상 구상

- AI 대전환 시기에 걸맞는 우리나라 혁신성장 미래상, 혁신성장전략 마련 시 고려사항 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5.14.(목) 「제5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 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①**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②**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③**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연구실장,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금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 기술·산업혁신정책 추진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요소집약형(패스트 팔로워)에서 혁신창출형(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바이오·우주산업 등은 퍼스트 무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김미현 성균관대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조성자 역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자현 KDI 연구실장은 K-컬처 등 그간 혁신성장 정책 중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 논의와 더불어 기존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장기 전략 마련 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와 보상을 인정받는 것이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미래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위원들은 AI 대전환 시대에 맞게 정부 조직 유연화가 필요하며, 부처간 업무중복과 칸막이(silo)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1610)
	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hidwn@korea.kr)
	미래전략기획실	책임자	과 장	신명석 (044-214-1630)
	혁신경제전환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현 (z56543@korea.kr)

